

# 전북대, 글로벌 랭킹 '국내 5위'

### THE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 거점국립대 공동 2· 세계 200위권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22일 영국 Times Higher Education 발표, 2020 THE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국내 공동 5위에 올랐다. 이는 거점국립대 중에선 공동 2위고, 세계 200위권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THE의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는 기존의 성취도 평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학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유일한 글로벌 랭킹이다. 대학의 역량과 사명을 평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인 셈이다.

올해는 세계 89개국 867개 대학을 대상으로 UN이 정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평가에 활용됐다. 평가 항목은

△빈곤 종식 △기아 해소 △건강과 복지 △교육의 질 △양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 △산업·혁신 및 인프라 △평등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 사회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산업, 혁신 및 인프라 점수가 8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순위에 포함된 빈곤 종식(SDG1) 64.8점, 기아해소(SDG2) 36.3-57.8점,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SDG17) 62.4-70.2점으로 총점 68.2-75.3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계 372개 대학(국내 12개 대

학)이 참여한 빈곤 종식 부문에서는 전북대가 거점국립대 1위, 국내 3위, 세계 7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전북대는 입시전형에서 기회균형전형을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지역인재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학생에게도 교육보조 인력을 지원해 멘토링과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인 '파란사다리 사업'에도 선정돼 지원을 통해 해외에서 공부하며 마음껏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창업지원단과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등을 중심으로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까지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거점국립대 2위(2017년 거점국립대 1위) 오르며 교육과 연구 등에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는 전북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이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며 지역 동량과 지역사회를 위한 앞날을 준비하는 대학으로 명성을 쌓게 됐다.

김동원 총장은 "공감과 융합으로 대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우리 대학의 슬로건인 '따뜻한 동행'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평가에 반영된 것 같다"며 "대학 내부분 아니라 지역과도 함께 따뜻하게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소통하는 체육회 만들 것"

### 안길호 부안군체육회장, 체육회 기능 강화 언급



또 그는 전국대회 유치와 체육시설 확충, 비인기종목 육성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이는 체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군민들이 영위하기 위함이다.

안 회장은 "부안군에는 현재 요트와 태권도 등의 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 유치 종목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며 "특히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내 면에 실내체육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민간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육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소통과 공감으로 체육회를 운영해야 된다"며 "부안읍·면체육회와 종목단체 간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새로운 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체육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부안군민들이 체육을 통해 서로 화합하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우석대 산학협력단 3년 연속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4일 우석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책임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26주일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1차 보건의료 및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능력 함양'을 목표로 안목회(간호학과) 교수 지도하에 29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기본이론(6주)을 비롯해 전문이론교육(4주), 의료원·보건소 임상실습(10주), 현지실습(6주)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에 참여자들은 보건소 임상 실습 기간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및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간호사로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안목회 교수는 "앞으로도 국가의 보건 의료정책을 이해하고 농어촌 등 보건으로 취약지역에서 1차 보건 진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전라권역 책임기관으로 2017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다.

/뉴스



우석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책임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26주일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 군산대, 대면 수업 대비 학내 방역 강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재택강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군산대학교는 27일부터 실험 실습 실기 수업 및 대학원 수업 가운데 일부 과목에 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바이러스의 학내 유입을 막기 위해 민방의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내 방역을 강화했다. 대면 수업에 대비해 대학본부 53개 동 등 학내 모든 건물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

다. 특히 출석 수업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의 방역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였다. 출석 수업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강의실 출입통로를 최소화하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여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대학본부, 학생회관, 학생생활관 교내식당 황룡도서관 출입구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발열자 확인 시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으며, 열화상카메라는 추가 설치도 고려

중이다. 또한 외부기온의 영향이 없는 실내에 발열체포인트를 설치하였다. 발열자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열확인인 열화상카메라 비접촉 체온계를 활용한다. 재학생 및 교직원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은 발열체포인트를 통한 발열 확인 후 수업 및 업무에 참여가 가능하다.

발열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에는 확인스티커를 마스크에 부착하여 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수업 및 업무 개시 전 담당교수나 부서장은 해당 구성원이나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 및 스티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부안교육문화회관, 휴관기간 중 도서대출 행사

부안교육문화회관(관장 이병노)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휴관 기간 동안 도서대출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관 홈페이지 게시판(독서문화진흥특파! 책드림)에 휴관 기간 동안 대출한 책의 감상평과 선물받고 싶은 책을 쓴 게시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참가자 10명에게 책선물을 주는 행사다. 단, 1인 1회만 참여 가능하며, 1인당 1권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서 예약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에게 꽃화분을 선물한다. 자료실에 비치된 후 한번도 빌려가지 않은 책을 대출하는 이용자에게는 위생용품을 증정한다. 선착순 30명 한정이며 1인 1회 참여만 가능하다.

이병노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에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연수원 교직원 연수

전북교육연수원(원장 김학산)은 5월 7일부터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밝혔다.

지난 24일 연수원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연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연수원은 원내 보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아침마다 열화

상카메라로 출근직원의 발열상태를 측정했으며, 연수생 질병 및 감염증 예방을 위한 과정운영자 자체 연수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수칙(손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을 준수하며, 연수시작 전 열화상 카메라 통과 후 강의실 입실과 종료 후 출입문 손잡이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성 기자

##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